

철밥통 씨의 '죽었다 깨나도 회사가기 싫은 날' VS 직장 분자들의 '그래도 회사를 즐겁게...'

마음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 일단 해봐~

△ 철밥통 씨의 이룬(?)에 따르면 회사 안의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면서 기분이 상하고,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회사가 가기 싫어진다던 것은 스트레스다.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든지, 월급 액수와 직장 내에서 살고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것을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다.

☞ 철밥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의 엉덩이에 통침을 놓을 수도, 월급 가지고 장난치는 사장 집에 불을 지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모든 스트레스를 '자신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다.

정말이지 회사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 및 거래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월요일마다 시름시름 아프고, 출근할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져도 어금니 꼭 깨물고 회사가 나가야 하는 이들, 회사가기 싫은 이유라면 얌은 자리에서 수백개의 이유도 달 수 있다고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뺨 없는 직장인들이 오래오래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담은 직장생활 협동서(죽었다 깨나도 회사가기 싫은 날)이 발간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셋죄로 직장에서 쫓겨날까 실명을 밝힐 수 없다는 지인이 '철밥통' 씨의 솔직한 직장생활담과 다소 엉뚱한 해결방안. 과연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분자들에게 들었다. '직장생활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하자!'



△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자, 동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인간'이 회사 내에 존재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 있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사사건건 사비 걸고 잔소리하는 직장상사와 개성과 창의성의 미명 아래 제멋대로 행동하는 후배사원들. 개개인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때론 회사라는 집단이 '팀'이란 미명 아래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고역을 부여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 철밥통: 우리는 회사동료를 종종 '웬수'라는 말로 대체한다. 어느 회사에나 이 웬수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착한 동료인 양 양의 털을 쓰고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람에게 따라 종류도 아주 다양하므로, 자칫 경계의 눈빛을 흘렸다가는 절대대로 회사에서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적군과 이군을 잘 구별해 적군을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 동료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정말 동료가 맞는지 살피고, 동료로 가장한 웬수들은 무조건 멀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 직장분자: 회사라는 집단의 비인간성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마음에 안 드는 상사와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유독 눈에 거슬리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계속 미워하고 헐뜯을 해서는 개인은 물론 회사의 발전과 화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심(下心)을 통해 우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또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화를 내기에 앞서 자신에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반성해보는 태도를 가지면 어떨까. 굳이 인과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원인이 없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의 고리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썩트지 않을까.

△ 퇴근시간도 체크하면 말야?
"왜 회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구조와 환경, 경영진의 무능함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시키는 일 잘하며 얌전히 살고 있는 사원들을 제일 먼저 무참히 누르는 것일까?"

업무나 인간관계 외에도 직장인들은 회사의 구조적 시스템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사원들의 능력을 북돋우려 하는 의도와 회사 내에 머무는 시간 등으로 평가하려 든다는 것이다. 업무를 다 끝냈음에도 상사의 눈치에 의해 퇴근을 못한다든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대해서도 '회사의 방침' 혹은 '오너의 결정'이라는 말 한마디에 꼼짝달랴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이럴 때 직장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때로는 회사에 왜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 들만큼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한다.

☞ 철밥통: 회사의 문제점은 퇴근시간 규제에서 잘 드러난다.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분노해야 할 일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근을 늦게 하는 것은 업무 시간에 놓였다든 반증 아니면,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끝낼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이므로 '저진아 반'으로 모아 특별 관리를 해야 하고, 능력이 있고 놀지도 않았는데 정시에 퇴근을 못 한다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사원을 총원해 주거나 비논리적인 '상사의 눈치'의 근절을 촉구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이 모든 것을 사원들의 시간적 희생으로 돌린다. 나는 이 구조적이며 암묵적인 범죄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비저항 무노동' 운동 즉,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놀 것을 권한다. 코파지만큼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말아라. 이걸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다.

☞ 직장분자: 안타깝게도 위의 해결책을 권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신 일터 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를 실천하려고 권하고 싶다. 고집적인 회사 구조와 시스템을 고칠 수 없는 한 회사 안에서 일과 수행을 병행하며 참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의 발전을 꾀하려는 얘기가. 자리아타(自利他) 정신으로 매사를 즐겁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때론 사표를 던지고 싶을 만큼 고달프고 힘든 직장생활을 현명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또한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능력 등을 일터 외에도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은경 기자 ipok@buddhapia.com

● **조언해주시는 분들:** 은평구청 불심회 류태근 총무, 소비자보호원 불자회 김중관 총무, 선재마을의료회 오영숙 간사, 대한불자기수회 김철민 회장, 국립의료원 법우회 임종수 총무.

우리불자회는요

경남 교사불자회 창원지회

경남 교사불자회 창원지회는 교사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친목, 청소년 포교활동을 위해 2003년 11월에 창립했습니다. 1년여의 짧은 역사지만 현재 창원지역 중·고등학교 3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매월 첫째주 월요일 성주사를 찾아 정기법회를 보고, 밀양 표충사 등 인근의 유명사찰들을 찾아다니며 신심을 돈독히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살려, 한국전통문화 체험과 문화재탐사반 등의 특별활동을 통해 학교수업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회원배가와 조직구성 및 다양한 사업방향 등을 통해 불자회의 골격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다음 카페(cafe.daum.net/buddha)를 통해 전국 12,000명의 회원들에게 지회의 소식들과 지역불교계 동향 등을 알리고, 지난 8월까지 경전공부를 하며 느낀 점과 배운 내용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닌 이상, 일반 교사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경남 교사불자회 창원지회가 2003년 11월 9일 성주사 석법전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청소년포교 활성화 방안을 세웠다.

전통문화체험 · 우리동네 청결운동 전개 불교적 인성교육 위해 토론·정보 교류 활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법회도 한 사람이 아닌, 지역 내 크고 작은 사찰들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사람들의 대소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조직의 기본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청소년포교활동 전진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몇 차례 더 의논이 될 계획이지만 회원들을 중심으로 수업시간이나 특활시간, 혹은 방과 후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불교적 아이덴티티를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모범적인 불교인행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호중 회장(정원 중앙여자고교 교장)**

습니다. 또한 봉사인증점수 등의 변화된 교육정책을 적극 활용, '우리 동네 청결운동' '문화재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우리 역사의 소중함 등을 알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우리 불자회는 지난 3월 31일에는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및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 교육감 4명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교육장, 창원 지역 교장 및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교육정책과 함께 불교적 인성교육 등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끝말할만한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경남지역 내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昔珠堂 正一 大宗師 49齋

歸依 三寶하옵고
금번 을유년 1월 1일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셨던 석주당정일대종사를 추모하는 49재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셨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역경물사와 포교활동에 평생 헌신하셨던 큰스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평소 큰스님을 흠모하셨던 각계의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길 앙망합니다.

불기 2548년 12월

● **일시:** 불기 2549년 1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법왕루

원로 대덕 스님과 초청 내빈들께서는 사전에 참여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봉은사 중무소 02) 3218 - 4811~5 ※ 일체 모든 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昔珠堂 正一 大宗師 문도대표 월우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拜上

